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# 소득계층에 따른 조세격차

□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격차(Tax Wedge)\* 증가폭이 OECD 회원국 평균 증가폭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.

○ OECD 34개국 평균 무자녀 독신자 기준 조세격차는 2000년 37.8%에서 2009년 36.4%로 1.4%p 감소한 반면, 우리나라의 조세격차는 같은 기간 17.8%에서 19.7%로 1.9%p 증가함.

○ 조세격차 증가폭이 우리나라보다 큰 국가로는 일본(3.9%p), 터키(3.0%p), 그리스(2.4%p), 멕시코(2.0%p)가 있음.

\* 조세격차란 인건비 가운데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며, 이번 조사는 전일제(full time)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짐.

□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의 조세격차가 더 많이 늘어나 소득세와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됨.

○ 우리나라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2009년 조세격차가 2000년에 비해 고소득층은 0.4%p 증가에 그친 반면 저소득층은 2.7%p 증가하였으며, 자녀가 2명인 경우 고소득층은 0.3%p 감소하였으나 저소득층 조세격차는 1.8%p 증가함.

○ OECD 평균은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저소득층 조세격차 감소폭이 2.1%p로 고소득층 감소폭 1.3%p보다 컸으며, 자녀 2명의 경우도 저소득층 감소폭이 3.9%p로 고소득층 1.6%p보다 큼.

○ 우리나라 저소득층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소득세율 누진도 완화와 사회보장제도 적용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.

□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는 우리나라 조세격차는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, 이에 더하여 저소득층 증가폭이 더 큰 것은 사회보장기여금 증가폭이 고소득층에 비해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함.

(세금·사회보험 부담, 저소득층이 더 늘어 등, 연합뉴스 등, 5/18)